

민주 '2특검·4국조' 밀어붙이기...전방위 대여 압박

1순위 채상병 특검법, 21일 전체회의 상정하고 입법청문회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방송 장악 의혹도 국정조사 서둘러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입법과 특검, 국정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를 밀어붙일 태세다.

18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특검법을 국회에 개원하자마자 재발의한 데 이어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할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개의 특검법안을 차례로 상정·심의한다. 모두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것들이다.

1순위는 채상병 특검법이다.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20일까지 법안 1소위 심사를 마친 뒤,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입법청문회도 열겠다는 숨 가쁜 일정을 잡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채택한 1호 당론 법안인 만큼 최우선 처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나흘 전 상정된 '방송 3법'을 야당 단독으로 심사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것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은 특검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루는 국정조사도 특검과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도 국정조사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취임한 뒤 정부·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에 편파적으로 높은 수위의 법적 제재를 내렸다는 의혹,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와 관련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최근 윤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과정 전반도 들여다 보겠다면서 '유전개발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올렸다.

민주당은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할 미국 액트지오(Act-Geo)가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박탈됐다는 점, 한국석유공사가 이미 지난 1월 심해유전 탐사 시추를 의결했는데도 지난달 윤 대통령이 이를 발표한 점 등에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국힘 목적은 윤석열·김건희 방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교생들도 다 안다"며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서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허송세월하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을 하지 말고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입법 권한도 없는 '짜증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노동자들을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같은 논리라면 여당은 국회 폭력 세력인 '국폭'인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대정부질문도 거부할 것 아닌가. 7월이 되면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 또 국회 일정을 거부할 속셈인가"라고 꼬집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방송3법·방통위법 야 단독 과방위 통과

숙려기간 생략 전체회의 상정 의결

장관·방통위원장 출석 요구 불응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만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3+1법' 또는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짜파 방송 영구약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한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사실정정을 진행해 줘야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형배 "호남정치 복원 위해 차기 전당대회 최고위원 도전"

광주시당위원장 양부남 vs 강위원

전남도당위원장 주철현 vs 김원이

광주의 유일한 재선 국회의원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양부남(서구을) 의원은 2년 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광주시당 위원장에 나선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저는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모두가 흔쾌하게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최고위원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호남 정치 복원과 정권 재탈환을 위해 광주답게 싸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 정치가 과거보다 못하다는 말씀이 많다"면서 "호남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중앙정치에서 혹은 민주당에서 제대로 반영해보겠다"고 강조



민형배 의원

했다. 민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또 차기 시당위원장에 양부남 의원을 추대했다.

민 의원은 "차기 광주시당 위원장은 아무래도 중앙정치와 인적 결합이 수월한 원내에서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들이 모두 8개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또 조직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원내에서 시당위원장 출마를 준비중인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기 광주시당위원장은 현역 의원인 양부남 의원과 친명계 원외 인사인 강 상임대표가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중앙당 전당

대회에 앞서 7월에 전국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한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양 의원을 추대했지만, 강 상임대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해석이다. 최근 민주당 중앙당이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관리당원 표 비중을 높이기로 한 데다 강 상임대표가 더민주혁신회의의 내 강성 지지 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당 위원장은 동부권과 서부권의 두 재선 의원 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당 위원장으로는 10명의 현역 의원 중 재선인 김원이(목포) 의원과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형국이다. 주 의원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김 의원도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김 의원이 "10여년 간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된 기존 방식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경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 판단이다. /오광록·김해나 기자 khn@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복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마트등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